

사업명	사업 범위	사업자	관련 법안	추진 현황
MyData 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영업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 부수업무: 정보계좌 업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업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제3자 공유 업무 • 경영업무: 자산관리(상품중개 및 추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 전체금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3 MyData 도입 최초 논의 • 2018.7 MyData 도입 계획 구체화 • 2019.5 오픈 API 표준화 Working Group 결성 - '표준 API'안 작성 예정 • 2020.1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 2020.8.5 시행 예정 • 2020.2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지급지시서비스업 (MyPayment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 내 본인 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 - 예) 농협 앱 내 신한 계좌, 우리 계좌를 통해 송금/이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 은행 • MyData 경영 업무 허용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 "금융거래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초기 논의된 수준(금융위) •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세부내용 확정(2019.2분기) 중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2019.10 공동 결제시스템(Open Banking) 시범 시행 • 2019.12 공동 결제시스템 전면 시행 • Open Banking 2020년 하반기 법제도화 예정
종합지급결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 가능하며, 결제/송금뿐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 가능 - 토스/카카오페이와 다르며, 계좌번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계좌가 없는 기관 (핀테크, 카드사 등)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소비자의 모든 금융 거래를 통합조회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냈다.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은 모든 금융 거래를 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종합 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면서 보다 용이하게 금융 산업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한 한 개의 금융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마이페이먼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주거래은행/금융기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닌 "주거래채널"이 중요한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쟁의 폭과 범위는 보다 넓어져서 기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아닌 핀테크와 고객 접점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종합지급결제업)가 도래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이제 고객은 자신의 니즈와 취향에 맞추어 금융기관을 취사선택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 설립하면서 머니 2.0 전략을 선포하였다. 카카오페이가 가진 견고한 머니 트래픽이 토대가 되어 결제, 증권, 보험까지 융합하는 '머니 2.0' 전략은 진정한 월렛리스(Walletless : 지갑 없는) 시대를 구현하며 국내 테크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설립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 발 금융 혁신이 법 제도 개정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금융산업의 혁신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고민은 커지겠지만 금융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이 속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7년 카카오뱅크가 가져온 모바일 고객 경험 혁신이 기억난다. 이제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면, 과연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댄다.